

04강	오행의 상생 상극	날짜 :
-----	-----------	------

## 1. 식물의 한살이로 유추하는 오행의 상생

<b>木</b>	火	土	金	水	봄 (자라다)
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한다.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한다.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의 水의 기운이 상승하며 목의 성장을 주도한다. 수가 목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‘____(水生木)’이라 한다.					

木	<b>火</b>	土	金	水	여름 (꽃이 피다)
나무에 적절한 열기가 더해졌으니 성장한다. 나무에게 있어 ‘발산’의 정점은 꽃을 피우는 것이다. 火는 나무의 한 살이에 있어 정점을 의미한다. 나무가 성장하여 꽃까지 피웠으니 이것을 ‘____(木生火)’라 한다.					

木	火	<b>土</b>	金	水	환절기 (양에서 음으로)
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,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. 식물이 언제까지 꽃을 피우기 위해 ‘목생화’만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없다. 음양의 전환이 필요하다. 음양의 전환에 토가 역할을 한다. 화의 기운을 억눌러 찬란했던 양의 기운에서 다시 음의 기운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. 화의 기운을 토에 간직하는 것을 ‘____(火生土)’라 한다. 화의 기운을 간직한 토는 금을 생해주며, 열매 맺기를 지원한다. 이를 ‘____(土生金)’이라 한다.					

木	火	土	<b>金</b>	水	가을 (열매 맺다)
봄과 여름 양의 계절을 거쳐 오며 나무는 커지고 꽃을 피웠다. 열매의 성장도 중단하고 안에서부터 익어나간다. 열매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하게 익어간다. 튼튼하게 하고, 단단하게 하며 내실을 기한다. 금의 열매는 더욱 단단해 지며 수렴을 향해 나아간다. 이를 ‘____(金生水)’라 한다.					

木	火	土	金	<b>水</b>	겨울 (씨앗이 되다)
열매를 맺고 난 이후의 일이다. 이제 종자가 남는다. 종자는 그야말로 생명의 수렴 그 자체이다. 목, 화, 토, 금의 과정을 거쳐 내실을 기한 것을 결정체이다.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한 여정이기도 하다. 역시 ‘____(金生水)’라 한다. 금의 단계에서의 금생수와는 조금 다르다. 종자란 내실에 내실을 기해 저장해야 한다. 열매를 맺는 내실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간 것이다.					

## 2. 오행의 상생(相生)과 상극(相剋)

